

고흥군, (주)LF와 지역 최초 골프장 만든다

사업비 2800억...신곡리에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2029년까지 18홀 규모 골프장·300실 리조트 목표

고흥군에 첫 골프장이 조성된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고흥 썬밸리리조트에서 (주)LF와 '고흥 신곡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고흥군 최초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와 김유일 (주)LF 부회장, 조용철 (주)구곡조경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투자협약은 과역면 신곡리 일원 154만7637㎡(약 46.8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28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사업 시행은 (주)LF

100% 자회사인 (주)구곡조경이 맡으며, 2029년까지 18홀 규모의 정규모대중골프장과 300실 규모의 리조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주)LF는 패션, 식품,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사업 역량을 갖춘 생활문화기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지난 2022년 신규 사업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25년 골프장 코스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1월에는 토지매입을 마무리했다. 올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 행위허가 등을 거쳐 오는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과 (주)LF 간 투자협약 체결은 사업 추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시행자는 책임 있는 투자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사업은 고흥군 최초의 골프장 조성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속한 행정 절차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고흥군은 최근 고흥 썬밸리리조트에서 (주)LF와 '고흥 신곡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고흥군 최초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양, '햇빛시민펀드' 조성...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공영주차장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광양시는 공영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공공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기존 주차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

영주차장 상부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모델로 추진된다.

시는 '(가칭) 광양햇빛시민펀드'를 조성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조합 설립을 추진해 발전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

상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해동에너지(주)를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세부 협의와 행정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차면 축소 없이 설계를 진행하고, 차량 통행 안전 확보와 화재·재난 대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공공성을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단계적

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양시민의 특화된 '시민 참여 에너지 모델'을 정착시키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부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익공유 정책 방향에 맞춰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양햇빛시민펀드를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김규진 기자 kjkjin@gwangnam.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밀착형' 준비 박차

입장권 구매 홍보·관광객 편의 대책 집중 논의

여수시는 최근 시청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테마별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

을 비롯해 국·소·단장 12명과 조직위 운영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해 섬박람회 입장권 판매 홍보 전략과 섬 지역 시민 실천운동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입장권 구매 홍보를 위해 이벤트, 챌린지, 캠페인 등 전 직원과 유관 기관·단체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오도, 거문도, 사도 등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주요 섬을 중심으로 친절·정결 등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개방화장실을 적극 발굴하는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기초 편의시설 확충

에도 힘을 기울인다.

아울러 섬박람회장과 주변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일정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개도 청서포 휴게공간 조성, 개도 마녀목공원 조성, 남면 비렁길 개선 공사 등 주요 사업을 살피고 섬박람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현구 시장 권한대행은 "행사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력한 행정 제재 예고와 홍보를 병행하되, 업체들이 위기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가격 안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과 소통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앞으로 음식·숙박 대책과 교통대책 지원 방안 등을 다들 보고회의 핵심 테마로 설정하고 보다 세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500년 역사 품은 나주 금사정 동백나무 보러 오세요"

제2회 동백축제 28일 개최 사생대회 등 프로그램 다채

나주시가 500년 역사를 간직한 천연기념물 제515호 금사정 동백나무를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봄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왕곡면 금사정 일원에서 제2회 나주 왕곡면 금사정 동백축제를 개최한다.

금사정 옆에 자리한 동백나무는 높이 약 6m, 줄기 둘레 2.4m에 이르는 거목으로 국내 동백나무 가운데서도 규모와 수령이 뛰어난 2009년 천연기념물 제515호로 지정됐다.

이 동백나무는 조선 중종 14년(1519년) 나주 출신 태학관 유생 11명이 정치적 격변 속에서 절개를 상징하며



나주시 왕곡면 송곡리 130번지에 위치한 수령 500년의 천연기념물(제515호)인 금사정 동백나무. 사진제공=나주시

심은 것으로 전해지며 500년 넘는 세월 동안 금사정을 지켜온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백 정생기원제와 사생대회, 금사정의

유래를 알리는 공연, 주민 화합 공연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동백꽃이 만개한 금사정 일대의 경관을 활용한 포토존과 동백 브로치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봄의 정취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 준비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금사정 동백나무가 지닌 역사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



여수시는 최근 시청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테마별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여수시

장성,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5월 29일까지...농가당 130만원

장성군이 5월 29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신청 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신청등록인

기준)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원 미만 등 8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이 확인되면 농가당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은 자격 요건 검증, 이행 점검 절차 등을 거쳐 12월께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직불'을 검색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물 품질관리원 통합콜센터(1334)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성=이항범 기자

곡성, 마을공동급식 위생관리 강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작업 수요가 많은 마을 가운데 조리시설을 갖추고 2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공동급식이 어려운 마을의 경우 반찬 제조업체와 계약하여 반찬을 공급받는 방식의 급식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곡성=김유민 기자 hnews1@gwangnam.co.kr

곡성군은 최근 곡성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2026년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지침 설명회 및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추진하는 13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대표, 조리원, 반찬배달업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부터 시작되는 마을 공동급식 사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위생 관리, 식품별 구분 보관 및 냉장·냉동 온도 준수, 조리원 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순천, 노후 수도계량기 5300여개 교체

8억 투입...요금 부과 공정성 확보

순천시는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노후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검침 정확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을 위한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5300여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수도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은 구경 50mm를 초과하는 계량기는 6년, 그 밖의 계량기는 8년이다. 시는 구경 50mm를 초과하는 계량기는 2020년 이전 검정 제품, 그 밖의 계량기는 2018년 이전 검정 제품을 대상으로 교체한다.

시는 오는 5월 사업에 착수해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도 계량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도계량기는 수도물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핵심 장치로, 사용기간이 오래된 계량기는 성능 저하와 계량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검침의 정확도를 높이고 요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계량기 계량 오류와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수도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해 검침 정확도를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과 신뢰받는 수도를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